

5. 밑줄 친 어휘의 쓰임이 의미상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자네 덕에 생일을 잘 쇠어서 고맙네.
- ② 그동안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 ③ 나는 식탁 위에 밥을 차릴 겨를도 없이 닥치는 대로 게걸스럽게 식사를 해치웠다.
- ④ 아이가 밖에서 제 물건을 잃어버리고 들어온 날이면 어머니는 애가 칠칠맛다고 타박을 주었다.

5. [정답] ④ [난이도 中 어법]

[풀이] '칠칠맛지 못하다'(O)가 올바른 쓰임이며 '칠칠맛지 못하고 타박을 주었다'로 고쳐야 한다. '주접이 들지 아니하고 깨끗하고 단정하다.' 또는 '성질이나 일 처리가 반듯하고 야무지다.'가 뜻인 말은 '칠칠하다'이며, '칠칠맛다'는 '칠칠하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이다. 이 말들은 주로 '못하다', '않다'와 함께 쓰여 '칠칠하지 못하다', '칠칠치 않다', '칠칠맛지 못하다' 등으로 쓴다. ④와 같이 '칠칠맛다고 타박을 주었다'는 좋은 일을 하 고도 타박을 준 상황이기 때문에 적절한 쓰임이 아니다.

[오답] ① 쇠다: 「동사」 명절, 생일, 기념일 같은 날을 맞이하여 지내다.
 ② 심심하다(甚深하다): 「형용사」 마음의 표현 정도가 매우 깊고 간절하다.
 ③ 게걸스럽다: 「형용사」 몹시 먹고 싶거나 하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힌 듯하다.

6. 다음 <한글 맞춤법>의 규정에 근거할 때 본말과 준말의 짝이 옳지 않은 것은?

<제32항>
단어의 끝모음이 줄어들고 자음만 남은 것은 그 앞의 음절에 받침으로 적는다.

<제39항>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ㅏ'가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① 어제그저께 - 옛그저께
- ②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 ③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 ④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6. [정답] ③ [난이도 中 어문규정(맞춤법)]

[풀이] 한글 맞춤법 제39항에 따라 어미 '-지' 뒤에 '않-'이 어울려 '-잖-'이 될 적과 '-하지' 뒤에 '않-'이 어울려 '-찮-'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예) 그렇지 않은 → 그렇잖은 / 적지 않은 → 적잖은
 만만하지 않다 → 만만찮다 / 변변하지 않다 변변찮다

[참고] '잡다'와 '잡다'

잡다	깔밋하지 않다→깔밋잡다 / 깨끗하지 않다→깨끗잡다 남부럽지 않다→남부럽잡다 의젓하지 않다→의젓잡다 / 두렵지 않다 → 두렵잡다 많지 않다 → 많잡다 / 예사롭지 않다 → 예사롭잡다 의롭지 않다 → 의롭잡다
잡다	대단하지 않다→대단잡다 / 만만하지 않다→만만잡다 시원하지 않다→시원잡다 / 성실하지 않다→성실잡다 심심하지 않다→심심잡다 / 평범하지 않다→평범잡다 허술하지 않다 → 허술잡다

7. 다음 중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진 게 없으면 몸이나마 건강해야지.
- ② 그 책을 다 읽는데 삼 일이 걸렸다.
- ③ 그는 그런 비싼 차를 살 만한 형편이 못 된다.
- ④ 그 고통에 비하면 내 괴로움 따위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7. [정답] ② [난이도 中 어문규정(띄어쓰기)]

[풀이] '읽는V데'(O)로 띄어 써야 한다. 여기서 '데'는 '일'이나 '것'의 뜻을 나타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데	의존 명사('곳, 장소, 일, 경우') 예) 그를 설득하는 데 며칠이 걸렸다. (→ '데+에') 예) 그 책을 다 읽는 데 삼 일이 걸렸다. (→ '데+에') 예) 가까운 데다가 높다. (→ '데+에+다가')
	① 어미(화자가 경험한 일을 보고하듯이 말할 때) 예) 그가 말을 아주 잘하데. / 그 친구는 아들만 돌이데. ② 어미 '-ㄴ데' 예) 여기가 우리 고향인데 인심 좋고 경치 좋은 곳이지. 예) 나무가 정말 큰데. / 그 옷은 얼마데?

[오답] ① '이나마'는 어떤 상황이 이루어지거나 어떻다고 말해지기에 부족한 조건이지만 아쉬운 대로 인정됨을 나타내는 보조사이다.
 ③ '살 만한'의 '만한'은 앞말이 뜻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나타내는 말인 보조 형용사 '만하다'의 활용형이다. '살V만한'으로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지만 '살만한'으로 붙여 쓸 수 있다.
 ④ '따위는'의 '따위'는 앞에 나온 대상을 낮잡거나 부정적으로 이르는 말인 의존 명사이다. '는'은 보조사이다.

8. 다음 중 밑줄 친 단어의 한자로 틀린 것은?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할 때까지 규제 ㉡혁파를 지속적으로, 또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러려면 기업이 덜어주기를 바라는 모래 주머니 얘기를 지금의 몇 배 이상으로 ㉢경청하고 즉각 혁파에 나서야 한다. 공무원들이 책상머리에서 이것저것 따지는 만큼 기업의 고통은 크다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규제 총량제, ㉣일몰제 등의 해법을 쏟아내기도 성과를 내지 못했던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 ① ㉠: 體感
- ② ㉡: 革罷
- ③ ㉢: 敬聽
- ④ ㉣: 日沒

8. [정답] ③ [난이도 上 한자, 한자에]

[풀이] '기울이다' 또는 '기울다'의 뜻인 '傾(경)'이 올바른 한자이다. '경청(傾聽)'이 올바른 한자 표기이다. 조금만 생각하면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글의 의미가 모래 주머니 얘기를 주의하고 집중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공경하다'의 뜻인 '敬(경)'은 문맥에 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

- 경청(傾 기울 경, 聽 들을 청): 귀를 기울여 들음.
- 공경(敬 공경할 경, 聽 들을 청): 공경하는 마음으로 들음.

[오답] ① ㉠: 체감(體 몸 체, 感 느낄 감): 「1」 몸으로 어떤 감각을 느낌. 「2」 내장의 여러 기관이 자극을 받아 어떤 감각을 느낌. 배고픔, 목마름 따위의 감각이 있다.

- ② ㉡: 혁파(革 가죽 혁, 罷 파할 파): 묵은 기구, 제도, 법령 따위를 없앴.
- ④ ㉣: 일몰(日 날 일, 沒 잠길 몰): 해가 짐.

9. “그렇게 하면 무릎에 무리가 갈텐데 괜찮을까요?”에서의 ‘-르텐데’를 국어사전에서 찾으니 표제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나왔다. 이에 대해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 ① ‘-르텐데’가 방언이기 때문에 표준어인 표제어가 실려 있지 않은 것이다.
- ② ‘-르텐데’를 ‘-르테’와 ‘-르테’로 분석해서 각각 찾으면 된다.
- ③ 기본형 ‘-르테다’를 찾아야 한다.
- ④ 의존명사 ‘터’를 찾아야 한다.

9. [정답] ④ [난이도 上 이문문법]

[풀이] ‘-르텐데’에서 ‘텐데’는 ‘터인데(터+이+-르테)’가 줄어든 형태이며 그럴 것 같다는 추측을 나타내는 말이다. 여기서 ‘터’는 ‘처지’나 ‘형편’을 뜻하는 말인 의존 명사이고, ‘갈 텐데’의 ‘갈’은 관형사형 어미 ‘-르’이 붙어 뒤의 ‘터’를 꾸미고 있다. 따라서 ‘텐데’는 ‘갈√텐데’와 같이 앞말과 띄어 써야 한다. ‘갈텐데’가 하나의 단어가 아니기 때문에 사전에서 찾을 수 없다. 먼저 의존 명사 ‘터’를 찾고 나머지 형태소의 기능들을 알아야 한다.

예) 가-(‘가다’의 어간) + -르(관형사형 어미) √ 터(의존 명사) + 이(서술격 조사) + 르테(연결 어미)

10. 다음 중 아래 글에 나타난 저자의 의도를 가장 적절하게 설명한 것은?

인공지능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해 인간과 비슷한 인지적 능력을 구현한 기술을 말한다. 인공지능은 기본적으로 보고 듣고 읽고 말하는 능력을 갖추므로써 인간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말을 알아듣고 명령을 실행하는 똑똑한 기계가 되는 것은 반길 일인가, 아니면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역전시키는 재앙이라고 경계해야 할 일인가?

- ① 쟁점 제기
- ② 정서적 공감
- ③ 논리적 설득
- ④ 배경 설명

10. [정답] ① [난이도 下 비문학]

[풀이] 첫째 문장은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특징을 소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공지능의 특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글의 도입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이며, 글의 전체에서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인공지능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이라는 ④도 정답으로 고려할 수는 있으나, 마지막 문장에서 핵심 내용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배경 설명과는 관련이 없다.

11. 다음 중 (㉠)에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속담은?

춘향이가 마지막으로 유언을 허는다,
 “서방님!”
 “왜야?”
 “내일 본관 사또 생신 잔치 끝에 나를 올려 죽인다니, 날 올려라고 영이 내리거든 칼머리나 들어주고, 나를 죽여 내어놓거든, 다른 사람 손 대기 전에 서방님이 샅꾼인 체 달려들어, 나를 업고 물러나와 우리 둘이 인연 맺든 부용당에 나를 뉘고, 옥중에서 서방님을 그려 간장 찌른 역류수 땀내 묻은 속적삼 벗겨, 세 번 불러 초흔히고, 서방님 속적삼 벗어 나의 가슴을 덮어 주오. 수의 입판도 내사 싫소. 서방님이 나를 안고 정결한 곳 찾아가서 은근히 묻어 주고, 묘 앞애다 표석을 세워, ‘수절원사 춘향지묘’라 크게 새겨주옵시면, 아무 여한이 없겠네다.”
 어사또 이 말 듣고,
 “오, 춘향아! 오나, 춘향아, 우지 마라. 내일 날이 밝거든 상여를 탈지, 가마를 탈지 그 속이야 누가 알라마는, 천봉우출이라, (㉠) 법이요, 극성이면 필패라니, 본관이 네게 너무 극성을 뵈었으니, 무슨 변을 볼지 알겠느냐?”

- ① 도둑이 제 발 저리는
- ② 웃는 낮에 침 못 뺀는
- ③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 ④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 (14~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시리 가시리이고 ㉠나는
 부리고 가시리이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날리는 엷디 살라 ㅎ고
 부리고 가시리이고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잡스아 두어리마는는
 ㉢선하면 아니 올세라
 위 증즐가 太平盛代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
 위 증즐가 太平盛代

14. 위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고려시대에 불리던 노래이다.
- ② 제목은 <가시리>이다.
- ③ 고려시대에 누군가 기록해 놓은 것을 찾아내어 다시 한글로 기록하였다.
- ④ 후렴구는 궁중악으로 불리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14. [정답] ③ [난이도 中 문학(고전시가)]
 [풀이] 고려 속요는 민간에서 구비 전승되던 민요의 일부가 고려 말에 이르러 궁중의 속악 가사로 수용되었다가, 훈민정음 창제 이후 성종 대에 이르러 《악학궤범》, 《악장가사》, 《시용향악보》 등에 기록되어 문자(한글)로 정착되었다. <가시리>가 불리던 당시에는 우리말이 없었기 때문에 민요이자 구전문학인 이 노래를 기록할 방법이 없었다. 따라서 대부분의 고려 속요는 작자 미상인 경우가 많다.

[오답] ① 고려시대에 불리던 작자·연대 모두 미상의 고려 속요이다.
 ② 일명 '귀호곡(歸乎曲)'이라고도 한다. 『악장가사(樂章歌詞)』에 가사 전문이, 『시용향악보(時用鄉樂譜)』에 1장에 대한 가사와 악보가 실려 있다. 또한 이형상(李衡祥)의 『악학편고(樂學便考)』에 '嘉時理(가시리)'라는 제목으로 가사가 실려 있기도 하다. 교과서에서는 보통 '가시리' 기록한다.
 ④ 민요로서의 원가는 서정적 자아가 사랑하는 임을 떠나보내는 이별의 슬픔을 비극적 정조(情調)로 노래하고 있지만, 이것이 궁중음악인 속악으로 수용되면서 그러한 비극적 분위기와는 관계없이 태평성대를 노래하는 후렴구를 덧붙여 왕실의 궁정 음악으로 향유되었음을 알 수 있다.

15. 밑줄 친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나는'은 '나는'의 예전 표기이다.
- ② ㉡: '잡스아 두어리마는는'의 뜻은 '(음식을) 잡수시고 가게 하고 싶다'는 의미이다.
- ③ ㉢: '선하면 아니 올세라'의 뜻은 '선하게 살면 올 것이다'라는 믿음을 표현한 말이다.
- ④ ㉣: '설은 님 보내옵노니'의 뜻은 '서러운 님을 보내 드린다'는 의미이다.

15. [정답] ④ [난이도 中 문학(고전시가)]
 [풀이] '설은'은 '서러운'이다. '서러운'의 주체를 '임'으로 볼 수 있고 작품의 화자로 볼 수도 있다. 구문상으로는 '설은'이 '님'을 수식하고 있어 임이 서러운 것처럼 되어 있다. 그러나 실질적 주체는 임과 서러운 이별을 하고 있는 작중 화자이다. ④의 설명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를 뿐이다.

[오답]
 ① '나는'은 의미가 없이 율을 맞추기 위한 여음구이자 조음구이다.
 ② '붙잡아두고 싶지만'으로 해석해야 한다. 떠나는 임을 붙잡고 싶지만 그러면 임이 영원히 나를 떠나 버리지 않을까 하는 염려를 담고 있다.
 ④ '서운하면 오지 않을까봐 두려워'로 해석해야 한다.

16. 다음은 <한글 맞춤법>의 문장부호 사용법에 대한 설명이다. 이 설명에 어긋나는 예문은?

<물음표(?)>
 (1) 의문문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어구의 끝에 쓴다.
 [붙임1]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2) 특정한 어구의 내용에 대하여 의심, 빈정거림 등을 표시할 때, 또는 적절한 말을 쓰기 어려울 때 소괄호 안에 쓴다.
 (3) 모르거나 불확실한 내용임을 나타낼 때 쓴다.

- ①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 ② 이번에 가시면 언제 돌아오세요?
- ③ 주말 내내 누워서 텔레비전만 보고 있는 당신도 참 대단(?)하네요.
- ④ 노자(? ~ ?)는 중국 춘추 시대의 사상가로 도를 좇아서 살 것을 역설하였다.

16. [정답] ① [난이도 河 어문규정(문장부호)]
 [풀이] (1)-1에서, 한 문장 안에 몇 개의 선택적인 물음이 이어질 때는 맨 끝의 물음에만 쓰고, 각 물음이 독립적일 때는 각 물음의 뒤에 쓴다. 예) 너는 중학생이냐, 고등학생이냐? / 너는 여기에 언제 왔니? 어디서 왔니? 무엇하러 왔니?
 [오답] ② (1), ③ (2), ④ (3)

※ (17~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
 ㉠육첩방(六疊房)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 볼까.

땀내와 사랑내 포근히 품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 보면 어린 때 동무를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작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 윤동주, 「쉽게 씌어진 시」

17.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선인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한 인식을 드러낸다.
- ② ㉡은 식민지 지식인으로서의 소명 의식을 드러낸다.
- ③ ㉢은 친일파 지식인에 대한 비판 정신을 보여준다.
- ④ ㉣은 어두운 현실을 극복하려는 화자의 의지이다.

17. [정답] ③ [난이도 下 문학(현대시)]

[풀이] 이 시는 친일파 지식인과 관련이 없다. 시적 자아는 시를 쓰는 행위에 대한 성찰에서 나아가, 쉽게 씌어지는 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시를 쓰는 행위를 현실적,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있다. 자신의 친일을 반성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오답] ① 현실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단적으로 드러난 구절이다. '육첩방' 현재 자신이 거주하는 곳이 일본임을 알려준다. 당대 현실의 구속과 부자유스러운 삶의 공간을 은유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시적 자아는 당시 조선인이자 지식인이자 시인이었다. 현실의 아픔을 시로 드러내야 하는 지식인의 소명 의식이 나타난다.

④ 두 개의 자아인 '나'는 현실 속에서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자아(현실적 자아)와 그것을 반성적으로 바라보는 또 하나의 자아(역사적 자아)를 가리킨다. 따라서 '최초의 악수'는 분열된 두 자아의 화해를 뜻한다.

18. ㉠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은 현실적 자아이고, ㉣, ㉤는 성찰적 자아이다.
- ② ㉠, ㉡는 현실적 자아이고, ㉣, ㉤, ㉥는 성찰적 자아이다.
- ③ ㉠, ㉡, ㉢은 이상적 자아이고, ㉣, ㉤는 현실적 자아이다.
- ④ ㉠, ㉡는 이상적 자아이고, ㉣, ㉤, ㉥는 현실적 자아이다.

18. [정답] ① [난이도 上 문학(현대시)]

[풀이] 우울한 삶을 살아가는 현실적 자아는 ㉠, ㉡, ㉢의 '나'이다. 그러나 삶을 반성하고 성찰하는 역사적 자아는 ㉣, ㉤의 '나'이다. 시인은 이 두 자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 현실을 극복하고자 노력한다.

19. 위 시의 제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인의 평소 생각을 특별한 표현 기법 없이 소박하게 나타난 작품이기에 쉽게 쓰인 시라고 하였다.
- ② 독립지사로서의 저항 정신을 시인의 시적 표현으로 여과 없이 옮긴 작품이기에 쉽게 쓰인 시라고 하였다.
- ③ 조선의 독립이 갑자기 쉽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표현하려는 작품이기에 쉽게 쓰인 시라고 하였다.
- ④ 시인으로서의 인간적 갈등과 자아 성찰을 담아 어렵게 쓴 작품이기에 반어적으로 표현하여 쉽게 쓰인 시라고 하였다.

19. [정답] ④ [난이도 中 문학(현대시)]

[풀이] 시의 제목을 이해하라는 문제이다. 시적 자아는 시를 쓰는 행위에 대한 성찰에서 나아가, 쉽게 씌어지는 시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다. 이러한 부끄러움은 시를 쓰는 행위를 현실적, 역사적 관점에서 성찰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화자는 부끄러움의 상태에서 시를 쓰고 있지만 '쉽게 씌어지는'이라는 표현을 통해 반어적임을 알 수 있다. 나머지는 시의 감상과 관련이 없다.

20. 다음 글의 문맥상 ()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행루오리(幸漏誤罹)는 운 좋게 누락되거나 잘못 걸려드는 것을 말한다. () 걸려든 사람만 억울하다. 아무 잘못 없이 집행자의 착오나 악의로 범망에 걸려들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부정이나 청탁이 개입되더라도 하면 바로 국가의 법집서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 결국 행루오리는 법 집행의 일관성을 강조한 말이다.

- ①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당국자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범망을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 ② 가벼운 죄를 짓고도 엄혹한 심판관 때문에 무거운 벌을 받으면
- ③ 가족이나 이웃의 범죄에 연루되어 죄 없이 벌을 받게 되면
- ④ 현실과 맞지 않는 법 때문에 성실한 사람이 범죄자로 몰리게 되면

20. [정답] ①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행루오리'는 '운 좋게 누락되거나 잘못 걸려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선택지 중에서 이와 관련된 사례를 찾으면 된다. 죄를 지었다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 누군가를 벌을 받고, 누군가는 당국자의 태만이나 부주의로 벌을 받지 않았다면 이것은 행루오리의 사례이다. 나머지는 요행이나 운과 관련이 없다.

• 행루오리(幸 다행 행, 漏 빠뜨릴 루, 誤 그르칠 오, 罹 걸릴 리): 요행으로 면하고 잘못해서 빠져나간다. 운 좋게 누락되거나 잘못해서 걸려는 것.

[오답] ② 심판관이 엄혹하기 때문에, ③ 가족과 연루되었기 때문에, ④ 법이 현실과 맞지 않기 때문에.

※ (21~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년 3월을 생생히 기억한다. 알파고가 사람을 이겼다. 알파고가 뭔가 세상에 파란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라고 상상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른바 '알파고 모멘텀' 이후 에이아이(AI) 산업은 발전했지만, 기대만큼 성장했다고 보긴 어렵다.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에이아이(AI) 챗봇이 상용화됐지만, 알파고가 쫓던 놀라움만큼은 아니다.

2022년 11월 또 다른 모멘텀이 등장했다. 오픈에이아이(OpenAI)의 챗지피티(ChatGPT)다. 지금은 1억 명 이상이 챗지피티를 사용하고 있다. '챗지피티 모멘텀'이라고 불릴 만하다. 챗지피티가 알파고와 다른 점은 대중성이다. TV를 통해 알파고를 접했다면, 챗지피티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많은 사람이 챗지피티는 모든 산업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챗지피티는 그 자체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챗지피티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만으로 학습했다. 그 이후 정보는 반영이 안 됐다. 챗지피티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답변을 얻기 힘들 수 있다. 오픈에이아이는 챗지피티를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챗지피티는 '언어 모델'이다. '지식 모델'은 아니다. 챗지피티는 정보를 종합하고 추론하는 능력은 매우 우수하지만, 최신 지식은 부족하다. 세상물정은 모르지만, 매우 똑똑한 친구다. 이 친구에게 나도 이해하기 어려운 최신 논문을 주고, 해석을 부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챗지피티에 최신 정보를 전달하고, 챗지피티가 제대로 답변하도록 지시하는 일은 중요하다. 다양한 산업에 챗지피티를 적용하기 위해서도 그렇다. 챗지피티가 추론할 정보를 찾아 오는 시맨틱 검색(Semantic Search), 정확한 지시를 하는 프롬프트 엔지니어링(Prompt Engineering), 모든 과정을 조율하는 오케스트레이터(Orchestrator), 챗지피티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Large Language Model)을 필요에 맞게 튜닝하는 일 등 서비스 영역에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챗지피티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기반의 에이아이 산업 생태계는 크게 세 개다. 첫째, 오픈에이아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이 대형 언어 모델 자체를 제공하는 원천기술 기업, 둘째,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서비스기업, 셋째, 특정 도메인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기업이다.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스케일에이아이(ScaleAI), 디스틸에이아이(Distyl AI), 쿼티파이(Quantiphi) 등 서비스 기업들이 부상 중이다. 실제 업무에 활용하기엔 원천기술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엘지씨엔에스(LG CNS)도 서비스 기업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서비스 기업이 나와서 함께 국가 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기대해 본다.

21. 다음 중 위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챗지피티, 이제 서비스다
- ② 알파고 모멘텀, 그 끝은 어디인가?
- ③ 챗지피티야말로 킬러 애플리케이션이다
- ④ 대형 언어 모델 자체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에 주목하라

21. [정답] ①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이 글은 '에이아이'와 관련된 산업으로 글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챗지피티'의 특징, 미래, 전망 등을 설명하고 있다. 글의 마지막에서는 챗지피티를 활용한 서비스 기업을 언급하며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챗지피티'와 '서비스'를 미래의 관점에서 언급한 ①이 제목으로 가장 적절하다. 나머지는 세부 내용과 관련이 있지만 글의 주제나 제목으로는 적절하지 않다. 참고로 이 글은 신문의 칼럼이며 제목은 'ChatGPT, 이제 서비스다'이다.

22. 다음 중 위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챗지피티는 알파고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놀라움을 주고 있다.
- ② 많은 사람들은 챗지피티가 모든 산업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 ③ 챗지피티는 정보를 종합하여 추론하는 언어 모델이 아니라 최신 정보를 축적하는 지식 모델이다.
- ④ 현재 대형 언어 모델이 고객 요청에 맞게 작동하도록 개선하는 여러 서비스 기업이 부상 중이다.

22. [정답] ③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4문단에서 '챗지피티는 알려진 바와 같이 2021년 9월까지 데이터만으로 학습했다. 그 이후 정보는 반영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글에서 언급한 챗지피티는 2022년 이후의 최신 정보를 축적하지 못한 모델이다. [오답] ① 2문단 '챗지피티가 알파고와 다른 점은 대중성이다.'

② 3문단 '많은 사람이 챗지피티는 모든 산업에 지각변동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기대한다.'

④ 마지막 문단 '재 대형 언어 모델을 만드는 빅테크 기업들이 주목받고 있지만, 실리콘밸리에서는 스케일에이아이(ScaleAI), 디스틸에이아이(Distyl AI), 쿼티파이(Quantiphi) 등 서비스 기업들이 부상 중이다.'

25. [정답] ㉔ [난이도 中 비문학]

[풀이] (가)의 앞에서는 비즈니스 화법을 언급하며 상사에게 보고할 때도 결론부터 말하라고 한다. (가) 뒤에서는 현실의 문제를 언급하며 때로는 결론을 뒤로 미룰 때도 있음을 언급한다. (가)의 앞과 뒤가 대조되는 내용이다. (가)에는 ‘하지만’ 또는 ‘그러나’가 적절하다. (나)의 앞에서는 상하 관계에의 사무적 인간관계에서는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다. (나) 뒤에서는 라이벌 동료와의 인간관계를 언급하며 ‘클라이맥스법’을 설명했다. (가)와 같이 대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하지만’ 또는 ‘그러나’가 적절하다.

2023년 군무원 최종 합격을 위한 자기소개서 & 면접 무료 특강!

8월 1일 (화)요일 부터 무료 수강 가능

필기 시험 후 가채점 점수가 합격선이라면? **군무원 최종 합격을 위한 보다 전문적인 면접 특강이 필요합니다.**

높아진 면접 비중

필기 50% (점수) + 면접 50% = **군무원 최종 합격**

최종합격 시 면접의 비중이 높아진 만큼, 더 철저하게 분석하고 더 전문적인 코칭이 필요합니다.

빠박한 서류 제출기간

1	2	3	4	5	6
신원인증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개인신용정보서	기본증명서 (양식)	병역관계 서류

각 항목별 통상 320자 내외로 작성해야 하는 자기소개서는 단시간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합격하는 자소서 작성법은 따로 있습니다.

군무원 면접에 합격하는 [자기소개서 작성법 & 고득점 면접 Tip] 모두 공개합니다.

2023년 최종합격을 위한 하이클래스군무원 온라인 무료 특강!!

Part. 1 자기소개서의 모든 것
 군무원 자기소개서 작성 Tip
 자기소개서 작성 기본 설계

- ✓ 합격자 광고문 분석, 면접의 이해
- ✓ 자기소개서 작성 ①
- ✓ 자기소개서 작성 ②

Part. 2 군무원 면접의 모든 것
 면접의 기본 지체 합격하는 면접 방법

- ✓ 면접 개요 / 면접준비
- ✓ 군무원 면접의 특성 / 면접 절차
- ✓ 예상 질문과 답변

2023년 면접 Key Point!

- 자기소개서 특권을 수강하고 자기소개서를 미리 작성하세요.
- 면접의 기본 자세 등 면접 특권을 완벽 수강하고, 면접의 기본자세를 숙지하세요.

군무원 면접의 기본서

- 2023년 군무원 합격만을 위한 자기소개서 작성 방법 안내
-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실전 면접에서의 활용 TIP
- 오랜 시간 경침이 축적된 군무원 자기소개서 양식의 항목 분석

[군무원 면접왕] 교재 구매하기

지금
하이클래스군무원에서
 신청하세요!